

## 천태만상, 자판기 세상 속으로

초·중·고교에 음료수 자판기 규제...정부, '비만 대책' 돌입

복지부, '국가비만대책위원회' 구성키로...비만 클리닉 전국 확대 등 대책 마련 나서

최근 들어 비만 인구가 급증하자 정부가 비만관리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비만 관리를 위해 이달 말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비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2월 말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확정된 다음 내년 1월부터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비만관리 대책은 식생활 개선과 운동 등 신체활동 지침, 비만치료와 관리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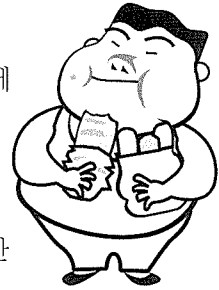
또 중장기적으로는 비만클리닉을 전국에 확대하고 전국 보건소를 통한 비만관리프로그램 확대, 식품과 음료수에 대한 규제 강화, 고도의 비만환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의 경우 열량과 지방 함유량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건강상의 위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비만의 주요 원인인 패스트푸드의 광고 시간대를 어린이 취침시간 이후로 조정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음료수 자판기 설치를 전면 금

지 또는 제한할 방침이다.

비만은 에너지가 과도하게 몸에 축적돼 나타나는 에너지 대사 불균형 상태를 말하며,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가 25를 넘으면 비만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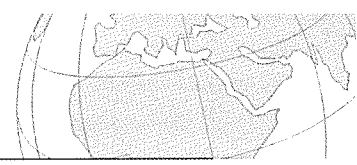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 비만인구는 10년 전보다 남자는 2배, 여자는 1.3배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의 32.4%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98년 남학생의 비만율이 7.2%에서 2천1년에는 15.4%로 3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었고, 여학생도 같은 기간 8.7%에서 15.9%로 두 배 가량 늘었다.

### '관광명소' 떠오른 경북 민물고기 연구센터, 민물고기 먹이 자판기 설치

경북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 부근의 경북 민물고기 연구센터 전시관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550여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주말이면 3천~4천명으로 방문한다. 전시관이 1999년 3월 문을 연 뒤 16만9818명이 다녀갔다.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민물고기 전시관, 민물고기 사육시설, 야외 학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100여평 남짓한 전시관에는 벽을 따라 수족관이 설치돼 철갑상어, 산천어, 쉬리, 메기 등 사라져가는 50여종의 토산 어종을 살아있는 그대로 구경할 수 있다. 200여점의 민



물고기 표본과 사진도 전시돼있다. 야외 학습장에서는 산천어, 꺾지, 잉어 등 민물고기 16종이 생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시간대가 맞으면 연어와 산천어의 인공수정 장면도 관람할 수 있다. 자판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먹이를 한 컵 뽑아 물고기에 게 먹이를 줘도 괜찮다.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관람객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시설 옆에 새 터 1163평을 마련해 레저 공간과 학습 기능을 갖춘 복합형 환경생태 체험관을 짓고 있다. 환경생태체험관이 완공되면 전시 물고기가 50종에서 70여종으로 늘어나고,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 어종들도 선을 보인다.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054)783-9413.

### 올린만큼 제값 하는 건 당연"

제주대의 자판기 시럽음료 판매가격이 올 2학기부터 종전 150원에서 200원으로 오르는 등 2000년 대비 34.6% 인상되었다.

제주대 소비조합은 최근 "컵당 구입단가가 140원을 넘어서는 등 운영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판매단가 인상을 미뤄왔으나 이번엔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며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일정기간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가격을 인상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한편 "판매가격이 오르는 만큼 서비스의 질도 향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판기 관련 사건 사고>

### 자판기계약 항응 · 금품 수뢰

#### 대기업 간부등 3명 징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유길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3일 대기업 내 자동판매기 계약을 둘러싸고 항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H사 복지

사업부 부장 이모(54), 차장 김모(49), 사원 김모(35)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 8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830만원, 770만원, 1,3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주문했다.

피고인 이씨 등은 지난 2000년 7월 남구 달동 S주점에서 사업장내 자동판매기 180대를 위탁 관리해오고 있던 K모씨로부터 "향후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3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3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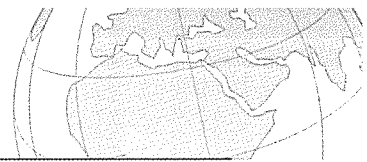
다만 유길중 부장판사는 사원인 김 피고인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4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판결문을 통해 "이를 교부 받은 때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씨의 검찰에서의 자백이나 나머지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돈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교부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장판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에 의거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관계있는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테이프 감은 동전으로 자판기 고장 낸 업자 구속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1월 중순 상습적으로 지하철역 자판기에 양면테이프를 감은 동전을 넣어 자판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자판기 관리업자 44살 박 모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9월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등에서 경쟁업자 50살 박모씨의 자판기에 양면테이프를 감은 10원짜리 동전을 넣어 망가뜨리는 수법으로



모두 36번에 걸쳐 4백5십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이번 달 말 지하철역 자판기 입찰을 앞두고 더 많은 자판기를 낙찰 받으려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현금 훔치려 자판기에 불 질러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 10월 23일 커피자판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초등학교생 허모군(10)과 중학생 임모군(16)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우모군(11)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18일 오전 3시23분쯤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드림피아 정문 앞에 설치돼 있던 도모씨(35) 소유의 커피자판기에 불을 지른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판기 내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 위해 자판기 컵 출입구에 신문지를 집어넣은 뒤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고, 22일에는 드림피아 후문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검거됐다.

### 고속도로 휴게소 자판기 털이 2명 검거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1월 16일 고속도로 휴게소를 돌며 자동판매기를 털어 온 혐의(특수절도)로 김모(22)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렌터카를 몰고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돌며 자동판매기를 도구로 뜯고 현금을 빼가는 수법으로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 300여 만원을 털 혐의다.

### 공원 자동판매기 털이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1월 6일 공원 인근에 설치된 커피 자동판매기를 부수고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6·회사원)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30분께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인근 모 가게 앞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를 부수고 현금을 훔치려다 가게주인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강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2시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자판기를 부수고 현금 5천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 일본 자판기에 손예진? '닭음 꼴이야? 손예진이야?'



최근 온라인에 영화배우 손예진과 닭음 꼴 사진이 화제다. 사진은 얼마 전 일본을 방문한 한 네티즌이 촬영한 것.

화제의 사진 속 주인공은 일본 오사카 성에 있는 한 음료수 자동판매기에 부착된 광고 속 모델. 너무나 손예진과 닮아 쌍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네티즌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을 촬영한 네티즌은 "처음 부착된 광고의 인물이 손예진으로 알고 놀랍고 반가웠다"며 "여러 번 봤지만 손예진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이미지였다"고 밝혔다.

사진을 본 사람들은 "손예진과 너무나 닮았다" "혹시 진짜 손예진이 아니냐" "정말 손예진으로 알고 깜짝 놀랐다" "일본의 한 모델과 손예진이 닮았다니 너무나 신기하다"는 반응이 계속된다.

"만약 광고속 인물이 유명하다면 손예진이 일본에서 활동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두 사람이 닮았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화제의 사진 속 인물은 실제 손예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커피 광고 모델로 손예진의 실제 모습이 국내 온라인에 공개된 것.

잠깐이나마 손예진이 '닭음꼴'로 둔갑했지만 일본에



서 손예진의 인기 척도를 가늠케 한다.

### 日 담배자판기 성인카드 있어야 사용

일본의 미성년자들은 앞으로 담배 사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 같다.

일본담배협회 등 담배관련 3단체는 전국 62만대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성인 인증 IC(집적회로)카드를 식별장치에 대어야 작동되도록 내부 장치를 바꾸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지역별로 자판기 교환과 카드 발급을 시작해 오는 2008년 4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인증카드를 자동판매기의 식별장치에 대면 카드에 기록된 생년월일로 나이가 확인돼 담배가 나오는 방식이다. 지난 2월 발효된 '담배규제협약'에 따라 미성년자의 흡연 방지 대책으로 나온 방안이다.

담배협회 등은 인증카드를 신청한 사람에게 나이를 확인해 1인당 1장에 한해 우송해주기로 했다.

### 일본 탄생일 신문 자판기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랜드마크 타워는 200여m가 넘는 높이로 인해 '하늘의 산책로'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조망이 좋다. 특히 69층에 있는 스카이가든은 일본 최고 높이의 전망대다. 사방이 유리로 둘러싸여 입체적인 조망을 하기에 제격이고 워낙 높이 있기 때문에 항도(港都) 요코하마를 드나드는 배들을 멀찌감치 바라볼 수 있다. 스카이가든의 야경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해 관광코스이기도 하다.

이 전망대에는 또 하나의 명물이 있다. 바로 탄생일 신문자판기다. 동전을 넣고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그날의 아사히신문 1면이 복사되어 나온다.

"내가 태어난 날,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누구라도 궁금해 할 만 하다. 남녀노소 누구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본인다운 상술이라고 할 수 있다.

### 최대 흡연국 中, "담배 피지마"

세계 최대 담배 소비국인 중국이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국제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8월 2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역에 담배자판기를 금지하고 5년 안에 TV와 라디오, 인쇄물, 인터넷을 통한 담배 광고 및 관촉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담배인구는 3억명이 넘으며 이중 18세 이하 흡연자만 500만 명에 이른다. 2003년 중국의 담배 판매량은 1조8000만 개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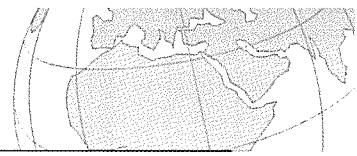
### 대륙도 콜라판매 올 스텝

"비만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자" 비만에 대한 우려로 미국과 폴란드의 초등학교에서 콜라 등 탄산음료가 철수된 데 이어 중국 학교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상하이(上海)의 상하이실험학교는 아동 및 청소년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콜라 등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 학교의 왕웨이항(王偉航) 교장은 신원천바오(新聞晨報)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콜라를 비롯한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 교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학교의 자판기나 매점에서는 콜라와 그 밖의 탄산음료를 볼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중국 웹시콜라 측은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전면중단한다는 미국 음료협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비만을 유발할 원인은 운동부족과 과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에 들어온 지 20년이 지난 지금, 콜라 유헤론이 불거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인구가 많



은 중국은 콜라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 하나지만 중국과 미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국가대중영양 및 발전센터의 후청강(胡承康) 연구원은 "미국인이 연간 마시는 탄산음료의 양은 1인 평균 200kg인 반면 중국인은 1인 평균 5kg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은 미국만큼 심각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미국 음료협회는 비만아동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 자판기에서 콜라와 사이이다 등 탄산음료와 가당음료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코카콜라 폴란드법인도 폴란드 내 초등학교들에서 콜라를 철수하고 대신 물과 과일주스를 판매기로 했다고 지난 8월 24일 밝혔다.

#### 디카·MP3도 자판기서 산다... 美서 설치 확산

디지털카메라나 MP3플레이어, DVD 등 고가 첨단 제품을 판매하는 하이테크 자동판매기 사업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 일간지 볼티모어선은 여행객과 호텔 투숙객, 패스트푸드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가격이 최대 500달러 선에 이르는 첨단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자판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줌시스템스는 헤드폰, 아이팟, 무선랜카드, 디지털카메라 등을 판매하는 자판기 165대를 공항 호텔 식료품점 등에 설치했다.

이 회사는 2년 안에 자판기 수를 3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맥도날드 자회사인 레드박스스 DVD 대여 자판기를 올해 말까지 맥도날드 매장 1000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자판기 한 대에는 최신영화를 담은 DVD 500장 정도가 들어간다.

스테이플스란 회사는 펜 프린터 카트리지 등을 자판기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 “자판기 때문에”... 伊 카페문화 위기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함께 ‘카페 문화’가 발달한 대표적 나라다. 아침이면 바에 서서 뜨거운 카푸치노로 간단히 허기를 달래는 이탈리아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오후에는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잠깐의 휴식을 즐긴다. 미국의 커피업체 스타벅스의 성공 비결도 이 회사 하워드 슐츠 회장이 1980년대 밀라노를 방문했다가 유럽의 카페 문화를 미국에 접목한 덕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이탈리아 전역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나 바, 레스토랑은 13만곳. 이런 원조(元祖) ‘카페 왕국’ 이탈리아가 커다란 위협에 직면했다고 영국 옵서버지가 보도했다.

‘카페 왕국’을 위협하는 경쟁자는 스타벅스도, 다른 다국적 커피업체도 아니다. 바로 커피자판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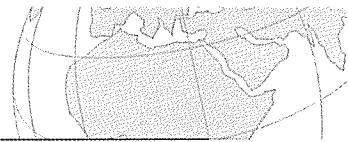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커피기계 제조업자들이 사무실이나 대학, 공장, 기차역에 기계를 무료로 설치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바람에 작년에 이탈리아 전체에 50만대의 커피 자판기가 설치됐다.

이탈리아에 커피 자판기의 확산을 부른 ‘주범(主犯)’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바쁜 현대생활로 인해 이탈리아의 느긋한 카페 문화도 변해가는 것이다. 게다가 카페나 바에서 마시는 커피는 최소한 0.7~1유로(약 890~1270원)인데, 자판기 커피는 0.3~0.6유로(약 380~760원)로 싸다.

#### 책도 자판기로 산다, 프랑스서 24시간 운영 인기

‘문화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는 책도 자동판매기에서 산다.’

파리의 지하철역 네 곳과 도심 거리 한 곳에 책 자판기가 설치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



했다.

서점 체인업체인 막시 리브르가 운영하는 이 자판기에서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문학서와 실용서 등 베스트셀러 25종이 판매되고 있다.

가격은 권당 2유로(약 2500원).

회사측은 자판기에서 책이 음료수 병처럼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 애서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란 점을 감안, 책을 안전하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기계 팔'도 설치했다.

### 휴대폰 자판기서 판매 보다폰 영국서 첫 시행

휴대전화까지도 자판기를 통해 사고파는 시대가 됐다.

유럽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보다폰은 10월 31일 영국 잉글랜드 북부 맨체스터에 휴대전화자판기 두 대를 설치해 지난주부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판기가 콜라, 캔디류, 담배, 컵라면 등 값싼 제품에 이어 현대인의 필수품이긴 하지만 비교적 고가인 휴대전화까지 그 영역을 확대한 셈이다.

보다폰은 '킵폰 벤딩 머신'이란 이름을 붙인 이 자판기에서 30~60파운드(약 5만~10만원) 가격대의 세 가지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다. 물론 전화기 모델을 매달 한 번씩 교체된다. 자판기에서 휴대전화를 사는 고객은 현장에서 즉시 전화를 개통해 사용할 수가 있다. 요금체계는 먼저 전화통화료를 지급하고 그 돈만큼 전화를 사용하는 것. 이른바 '페이 애즈 고(pay as go)' 방식이다.

보다폰은 맨체스터에서의 휴대전화 자판기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 전 유럽으로 판매영역을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마케팅 담당자는 "주요 고객은 전화기 구입과 개통에 별도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휴대전화 자판기 등장

과 관련해 신원확인 등의 절차 없이 아무나 휴대전화를 사서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英학교 “굿바이, 정크푸드”

급식·자판기서 추방' 내년 9월 의무화

영국의 모든 학교에서 정크푸드가 완전히 추방될 전망이다 BBC 등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영국의 루스 켈리 교육부 장관은 28일 노동당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내년 9월부터 학교 급식 또는 자판기에서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 감자튀김이나 칩, 햄버거와 소시지, 초콜릿과 스낵 등 청소년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정크푸드를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금지대상이 되는 품목들은 주로 지방 함량이 많은 육가공 식품과 설탕이나 소금 함량이 많은 식품들. 이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던 콜라 등의 탄산음료나 껌, 스낵 자판기 등은 모두 퇴출된다. 물론 매점에서도 이런 음식물들은 판매할 수 없다. 판매가 가능한 음식물은 곡물 빵이나, 머핀, 베이글과 크루아상, 요거트, 말린 과일 등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일단 학교급식검토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금지대상 정크푸드 목록을 정하고 학교급식의 표준 식단을 마련한 뒤 이를 각급 학교에 제공, 내년 9월부터 시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영양학자 제인 클라크는 "과일, 야채, 지방 함량이 적은 고기 등으로 이뤄진 학교급식 표준 식단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국민건강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이 내려졌다"고 환영했다.

영국의 학내 정크푸드 금지 조치는 스타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주도한 '급식개선운동'의 결과물이다.

올리버는 TV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급식이 정크푸드의 집결체임을 지적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균형 잡힌 식단을 마련할 수 있음을 선보여 정부로부터 학교급식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다.